

국어교과서에 대한 반성과 극복

문학교육연구회 엮음 「우리들의 문학교실」

중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긍지를 갖게 하고 바른 의식과 문학적 감성을 키워주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어교과서는 지난 수십년간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달매체가 되어 그 본래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청소년들의 현실인식과 올바른 문학관을 가로막는 작품의 선정과, 그러한 글들에 담겨진 철저하게 현실과 유리된 삶의 모습은 국어교과서가 반민족적 발상을 일삼거나 서구적 퇴폐주의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들의 문학교실」(까지, 88)은 바로 그러한 국어교과서에 대한 반성과 극복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반성하고 극복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서생활을 풍부하게 해야 하는 국어교과서가 거꾸로 학생들의 정서적 발육을 저지하고 억압하며, 결국 국어과목은 달달 외워야 하는 암기과목의 하나로 전락하고, 급기야 그들은 배급주의적, 이기주의적인 대중문화의 한가운데로 내몰려지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과연 어떤 국어교과서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이 「우리들의 문학교실」에 담겨져 우리 앞에 제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노래마당, 이야기마당, 생활글마당, 놀이마당, 이렇게 전부 네개의 큰 마당과 다시 그 안에 여러개의 작은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삶의 희망이 가득차 있다. '노래마당'에서는 노래와 시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이야기마당'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의 자아의 발견을, '생

활글마당'에서는 글쓰기의 생활화를 통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삶과 밀착된 문학의 건강성을, '놀이마당'에서는 허위의식의 각성과 참된 놀이문화 건설의 열망을 보여주고 읽히고 생각하게 하고 드디어는 찾아나서게 한다.

진정한 전통문화인 민요나 탈춤대본을 넣고 교과서에 노래를 도입한 점이라든지, 학생들 자신의 글을 실은 점 등은 새로운 시도도 한결 돋보이며, 각 묶음마다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그 단원에서 획득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준 점 정도 참신하다. 또한 한자를 거의 넣지 않아 쉽고 아름다운 우리글의 향취가 한껏 풍기게 한 것도 큰 특징이다. 다만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이 몇편의 조선 말기의 것을 제외하면 거의 최근의 작품들로 시대적 편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정작 교과서를 구성할 때 꼭 알아야 할 국어 문법과 문학사 정도를 보충한다면 손색이 없는 바람직한 교과서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강조하여 말하듯이 '나의 삶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문학교육은 바로 이러한 명제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들의 문학교실」에 담겨 있는 건강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이 읽고 토론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교과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본다.

김신정

연세대학교 국문과 4년

자기체험과 매춘의 새로운 인식

윤정모의 자전소설 「고삐」

소설이 체험과 상상의 배합물이라는 말은 진부하지만 소설다운 특성을 드러내는데 유익하다. 요컨대 체험이 강하면 주관적이 되기 쉬운 반면, 상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심지어 허황해지기까지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흔히 자전소설이라 부르는데, 윤정모의 장편소설 「고삐」도 그 계열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세껏 밝혀지지 않았던 작가의 개인적 삶의 모습보다는 거기에 투영된 정치적·사회적 총체성의 전면 혹은 단면을 파악해내는 일이다.

「고삐」는 크게 두 개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주인공 정인과 연관되어 있다. 정인이 문제학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서 겪는 온갖 번두리체험 속에서도 상우와 결혼하여 진솔이라는 아들을 둔 가정생활과, 그렇듯 공을 들였는데도 열일곱살 어린 나이에 양공주가 되어 결국 페트로라는 미군과 결혼한 동생 해인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거칠게 요약해본 이같은 내용은, 그러나 껍질에 불과하다. 그 껍질에는 이 땅의 굴곡많은 현대사가 토실한 알맹이로 들어 있다. 우선 이땅의 해방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入城한 미국의 실체가 현재시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된다. 한상우는 대표적인 '민중민족주의자'이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연행되지만 당당하고 명쾌한 소신에 차 있다(본문 97~107면). 특히 매춘과 윤락이 외세와 깊은 함수관계에 놓여 있다는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자본주의의 한 '필연적인 필요악'이라 치부되어온 인식의 늪을 빠져나오는 진일보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인자매의 그 길이 그들이 살아온 시대적 상황과 맞물리면서도 생

계를 위한 수단에 머물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정인의 경우, 배다른 동생 해인을 위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반미'에 눈뜨는 것도 남편이 구속되고 '민가협' 회원들과 만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회상형소설로 지난 이야기들이 거의 추억되면서도 정작 주요인물의 하나인 남편과의 결혼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없어 잠깐 필름이 끊긴 듯한 인상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이 무게있게 와닿는 것은 역시 시류 때문이다. 예컨대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독재타도, 반미고조, 통일지향 등이 거세지 않을 때라면 「고삐」는 한낱 통속소설에 그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결말의 정인자매간의 불화는 주목을 요한다. 그것은 정인의 못배웠다든 간절한 충고를 해인이 자극적으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지만, 거기에는 민족과 반민족, 반미와 친미 사이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그들 자매의 비극이 개인적·평면적이기에 앞서 민족적·입체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거니와, 우리는 비로소 반미소설의 장편화에 물꼬를 튼 한 자전이 주는 물큰한 감동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장세진

전북 남원시 동충동 4-2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 출판**
- 단행본 ○ 전집류 ○ 잡지
 - 교양도서 ○ 참고서 ○ 사전류
 - 교과서
- 신문**
-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월간신문
- 잡지**
- 교양지 ○ 전문지 ○ 종합잡지
 - 정기간행물 ○ 사보

- 1기생 96% 취업확정
- 2기생 취업요청 쇄도

● 취업보도실 : 671-8317

미올업디자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

한 철학자의 방관자적 '지적 행로'

박이문 지음 「사물의 언어」

「사물의 언어」는 철학자이며 불문학자이고 시인인 박이문교수의 '실존적' 자서전이다. 이 글은 저자 자신이 말하듯, 단순한 '나의 살아온 얘기'와는 조금 다른, 보다 내적인 변모를 다룬 일종의 '지적행로'이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닦쳐오는 '허무와의 정신적 싸움의 굴곡과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고향 얼굴들」에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고 아득한 향수를 느낄 갖가지 추억을 만난다. 그런 공통된 추억은 궁핍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한민족의 동질성과 끈끈한 일체성을 일깨워주는 근원적 계기이기도 한다.

'기와집 면장나리택'의 막내아들이라는 특권적 신분이 부과한 소외감과, 8·15해방후의 좌·우익대립이 빛은 극심한 혼란상, 민족적 비극인 6·25동란,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공포와 극심한 빈곤은 저자의 선천적인 병약성과 맞물려 지독한 허무주의를 안겨준다. 허무주의는 삶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회의와 연결되고, 그 회의는 자신의 존재의의를 묻는 실존적 고뇌로 이어져 그의 치열하고 끝없는 지적 탐구를 낳게 된다.

저자가 일구어나가는 지적 행로의 험난함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글 전체에서 느껴지는 것은 잔잔한 호수와의 같은 관조적 분위기이며, 조국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물(사람까지도 포괄한)에 대한 파스한 시선이다. 오랜 지적 고행의 소산이라 여겨지는 그의 간결하면서도 파스텔화 같은 경건한 종교적 태도마저 엿보이는 진지함을 느끼게 한다.

저자의 놀라운 정도의 지식욕과 삶의 본질에 대한 치열한 탐구욕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연상하게 하는 바 있지만, 나는 저자의 학자

적 순수성과 시인적 감수성의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아쉬움과 불만을 못내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저자의 허무와 삶의 본질에 대한 고뇌가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유속으로 함몰돼버림으로써 오랜 지적 고행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적 '참여'에 이르지 못하고 '삶은 싸움'이란 말에서의 '참여'라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고 만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심취한 철학(분석철학)이 지닌 형식논리학적·관념적 한계가 「인생 참여」에서 보여준 회의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를 해석하는' 일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그의 내성적·수동적(지적 탐구의 면을 제외하고) 성격과 더불어 더 이상의 적극적·실천적 인식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언제나 한결을 떨어진 방관자적 시각에서 정체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자신의 성장과정과 내면에 대한 진지한 구도의 자세가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하고 달관자적 풍모를 보여주지만, 그 내면의 성찰이 사회로, 더 큰 삶의 장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 폐쇄회로 속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어 못내 아쉬고 안타까웠다.

김상현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5구 593·대학생

'우주의 시초'에 관한 함축적 이론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아인슈타인 이래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히고 있는 스티븐 호킹은 블랙 홀과 우주의 시초에 관한 독보적인 연구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의 연구가 루게릭병으로 인해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적 불구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자는 「시간의 역사」(삼성이데아, 88)에서 '우주의 시초'에 관한 최첨단 물리학이론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오늘날 과학은 너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이 되어버려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과학이론의 발전에 보조를 같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학은 이미 '세계 해석하기'를 포기한지 오래이며, 물리학자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정밀한 계산과 실험에 파묻혀 사는 과학자들이 일반인을 위하여 복잡한 방정식을 일상언어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들은 있어왔고, 그 덕분에 블랙 홀이나 빅 뱅(대폭발)과 같은 용어가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이미 낡아버린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물리학분야의 제1인자로 꼽히는 대가의 견해를 평이한 문장으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지닌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다룬 것은 우주의 시초에 관한 문제이나, 거기에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갈릴레이, 뉴턴을 거쳐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과학이론과 우주관의 변천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와 함께 현대 물리학의 기본개념인 소립자와 양자역학, 블랙홀정성원리 등을 해설하면서, 저자의

전문분야인 블랙 홀과 우주의 시초에 관한 이론이 전개된다. 후반부에서는 물리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중력, 전자기력, 강력, 약력을 하나의 현상으로 통일하려는 대통일이론을 향한 물리학계의 최근 시도에 관한 소개도 포함시켰다.

과학도나 우주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매우 값진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수식과 방정식을 제거시킨 저자의 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은 여전히 어려우며, 함축된 내용이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본문내용은 그의 이론이 얼마나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시사해준다.

“신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고 대답하지는 않았다.”

이 문답은 “천지창조는 기원전 4004년 10월 26일 오전 9시에 일어났다”고 말한 아일랜드의 신부 어셔(Usser)와 한 신도와의 대화인데, 본문에는 이러한 에피소드가 생략되어 있다. 독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체 하에 쓰여진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주석이 필요한데, 애석하게도 이 책의 각주에는 대부분 전혀 불필요한 설명이나 본문내용의 이해와는 관계없는 다른 설명이 담겨져 있다. 앞선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는 그에 준하는 주석과 설명을 달아 일반인의 이해를 도와야 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李日天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67-3 201호·회사원

“디자인 전문가들 책도 잘 만듭니다”

만들어진 한 권의 책-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일단은 보기가 좋아야 합니다. 표지부터가 끌려야 합니다. 안을 살펴보면 웬지 친근감이 와 닿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은 확실히 잘 팔립니다.

유능한 아트디렉터를 만나십시오. 판매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은 품위있게 만들어진 책을 원합니다.

유능한 아트디렉터를 만날 수 있는 곳
케이에스아이 디자인
Tel. 277-9149 Fax. 277-9149

동행 기획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279·1323

번역전문

일본어(고전·현대어)
영어
중국어

*신속·정확하게 원문에 충실하게 한 국인의 감각에 맞게 제2의 창작 정신으로 번역함.
*문학작품·전문서적 등 어떠한 번역물도 다 취급함

세계외국어학원 번역부

☎ 553 9015~6

유진 AD

입력에서 출력까지
온라인 전산 시스템 가동

레이저 프린트를 이용한 교정

● 전산사식·사진식자·편집·광고기획

TEL. 273-6486 FAX. 273-617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2가 69 (동명 BD3층)